

### '행복의 발견'

스튜어트 매크리디 엮음/김석희 옮김

휴머니스트 / 1만 8천원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행복을 갈망하는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지, 행복을 과연 느낄 수는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발견해야 하는가. 진정한 행복은 이미 우리 속에 있으며,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느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책에, 말을 걸어 보았다.

이 책에는 역사학자·철학자·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17명의 행복 탐사대가 발견한 전 세계의 행복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고 탐구해 온 3천여년의 역사 속에서 일찍이 철학적·종교적 통찰과 과학적 발견, 그리고 동서고금의 위대한 석학들이 발견해낸 행복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여, 무엇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복'이라는 주제를 담아낸 풍부한 그림과 일러스트도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각 종교가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종교마다 다른 행복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불교 부분을 살펴보자. '불교의 해탈론은 한정된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으며, 윤회의 세상에서 자아가 경험하는 관능적 기쁨, 희열과 쾌락의 감각은 흔히 신스크리터에서 '행복'을 뜻하는 '슈카(sukha)'라는 용어로 지칭되었다. 이와 관련된 낱말은 즐거움, 환희, 만족 등이었다. 이 모든 것은 일시적 만족감을 통해 더 많은 고통을 낳는 것으로 여겨졌다. 초기 불교에서는 영원불변한 영혼에 대한 욕

##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역사·철학·심리학자  
11명의 행복이야기

행복을 버리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목표였다.

중국 철학과 종교의 행복론 부분에서는 '중국의 철학과 종교에서는 '복(福)'과 '낙(樂)'이 행복의 주요 개념이다. 하지만 중국의 3대 사상-도교 유교 불교-은 모두 '복'보다는 '낙'을 더 자주, 더 폭넓게 고찰했다. 거짓된 행복-사물에 대한 집착-을 거부하고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도에 이미 예시되어 있었다.'

수피즘의 행복론은 상당히 현실적이다. '수피즘의 행복 추구는 변형적이고 언급술적인 과정이

다. 어떤 시점에서-예컨대 생의 주요 갈림길에서, 또는 가슴 아픈 상실을 겪은 뒤, 또는 영감을 주는 만남의 결과,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인간의 의식 속에 문득 '각성'이 일어난다. 수피들은 이 각성을 개전(改轉), 즉 마음의 전환'이라고 부른다.'

이밖에도 인도철학과 종교의 행복론, 그리스 철학자들의 통찰, 중세 철학의 행복론, 유대 신비주의의 행복론, 중세 기독교의 행복론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는 모두에게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무량수경>의 한 부분을 곁집어 볼 것을 권한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온다. 그 바람은 맑지도 차지도 않고 세거나 약하지도 않고, 기분 좋게 분다. 그 바람이 갖가지 보석 그물과 보석 나무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면 한없이 미묘한 법음을 내고 갖가지 우아한 덕의 향기를 풍긴다. 이같은 소리를 듣거나 향기를 맡으면 번뇌의 때가 저절로 사라지고, 덕풍이 몸에 닿으면 심신이 저절로 상쾌해진다.'

이은자 기자 eeslee@buddhapia.com

### '삶을 가르치는 은자들'

피터 프랜스 지음/정진욱 옮김

생각의 나무 / 1만 1천원



<삶을 가르치는 은자들>은 역사상 위대한 은자들(善師)로 기억되는 이들의 삶을 분석, 조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들이 남긴 영적인 통찰과 삶을 바라보는 지혜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책은, 은둔의 양상과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한다.

노장(老莊)으로부터 출발해 황야의 교부들, 스테레츠 라마크리슈나와 샤를 드 푸코, 헨리 데이빗 소로우를 거쳐 현대의 은자들인 토머스 머튼과

### 노장~현대까지 은자들의 삶 통해

은둔의 양상·의미 다양하게 분석

로버트 맥스 까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은자들의 삶을 보면 은둔이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선택되어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종교적인 수행과 결합되어 설명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럴 때 은둔은 보다 뚜렷하고 의식적인 함축적 행위로 간주된다. 그들은 종교적인 영성의 획득을 통해 세상에 구원의 빛이 되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동시에 그 삶을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

황야의 교부들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 그리스도가 남긴 사막의 고행의 비유에 영향을 받아 사막에서 극단적인 은둔을 추구한다. 그들은 나뭇가지로 지붕을 덮은 돌 동굴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표방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신과의 교분을 시도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금욕을 통한 정진

인간성의 회복이었다. 라마크리슈나와 샤를 드 푸코 역시, 고행과 은둔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영적인 가치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다.

이들과는 반대로 정치적인 소신에 의해 저항으로서의 은둔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원혼>을 쓴 헨리 데이비 소로우이다. 그는 자신이 숲 속으로 들어간 이유를 '삶을 신중하게 살고 싶고, 오로지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만을 마주하고 싶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내가 삶을 헛살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은둔은 소로우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만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몰고 왔다. 그는 오늘날 활발하게 논의되는 시민 불복종과 생태주의 운동에 큰 영감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이 책은 은자들의 삶을 통해 현대적 삶에서의 고독과 은둔이 지니는 사회적인 의미를 밀도 있게 탐구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 문제적 역사인물 17명 조명



필자는 역사 대중화를 위한 방법으로 서술이 '쉽고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왔다. 문체가 딱딱하거나 서술이 건조하면 역사 전공 학자가 아닌 대중들은 그 글을 외면하기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의 국정 교과서일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국사 교과서가 어렵다고 고개를 흔들며 국사에 흥미를 잃는다. 근래에 일부 소장층 역사학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쉽게 쓰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소장 역사학자인 이희근님이 쓴, 그 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역사 인물 17인의 평가를 읽어보고 위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저자 나름의 새로운 서술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인물은 연계소문, 의자왕, 김춘추와 김유신, 견훤, 공예, 왕건, 묘향, 김부식, 신돈, 이성계, 원균, 이순신, 광해군, 인조, 흥선대원군, 민비 등이다. 이들 인물은 어떤 의미든 우리 역사를 이끌어 왔다. 그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어, 호평(褒評)의 자를 들어 대기도 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들 인물들 평가를 하면서 시대에 따라 그 영향을 받아 이룩된 사실을 부록 형식으로 덧붙이고 있다. 곧 '김춘추와 김유신의 유산, 윤관과 북벌', '태조 왕건의 유산 상속자, 공종', '태조 이성계의 유산, 왕자의 난', '인조 반정의 유산, 효종의 복벌론' 등이다. 어느 인물이 이룩한 일이 뒤 세상에 영향을 준 사실을 종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한편 이 책의 인물 평가는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추적한 것이 아니라 시대 환경과 업적을 중심으로 풀어나고 그 평가의 잣대를 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후에 일어난 역사 사실을 아울러 기록하였다. 김춘추와 김유신의 경우, 삼국 통일 문제라든지, 왕건의 경우, 호족 정벌의 폐단이라든지, 신돈의 경우, 개혁정치가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들었다. 또 풍부한 사료의 평가와 추적을 통해 자기 견해를 밝히고 있다. 객관적으로 설득력을 높이려는 의도일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재해석 재평가를 시도하면서 영웅사관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그 동안

김유신, 왕건, 이성계, 이순신 등을 영웅으로 받들었다면 상대적으로 연계소문, 의자왕, 공예, 신돈, 원균, 광해군 등은 딱딱 먹은 인물 또는 폭군으로 그려져 왔다. 한쪽이 영웅이 되면 그 상대는 추박하는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또 현실 개혁을 외면한 김부식, 인조는 보수주의자인데도 요란 역사적 평가를 받아왔으며,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바로잡으려 하였는데도 민비를 부각시키면서 상대적으로 폄하(貶下)되어 왔다. 이

책에서는 이런 문제를 시원스러울 정도로 풀어내고 있다.

물론 이 책에서 다른 인물 평가는 저자 혼자만의 견해는 아닐 것이다. 그 동안 여러 역사학자들이 재해석을 도모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역사적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그 평가를 들은 근대의 역사학자 신재호는 연계소문, 묘향 등을 다루고 그들의 역사적 역할을 부각시켰으며, 이순신, 원균의 관계와 공해군, 인조의 대결도 꾸준히 재평가 작업을 시도해 왔다. 더욱이 흥선대원군과 민비의 갈등도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한데 저자는 '민비'라는 호칭을 쓴 것으로 보아도 실체가 없는 명분이나 지나친 과정을 배격하고 실

천적이고 개혁적 인물을 내세우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필자는 이런 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필자도 그동안 여러 인물을 다루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평가 작업을 벌여왔으며, 영웅사관을 배격하였다. 그러면서 좀더 넓은 지식과 이론적 토대가 요구된다고도 여기면서 그 한계를 가지기도 하였

다. 역사 인물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따라 계속 여러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에 들어 이런 작업은 역사의 지평을 넓힐 것이다

다만 덧붙일 말은 현직하고 대중에게 영감하려는 저널리즘과 '센세이셔널'에 빠지는는 아닐 것이다. 요즘은 상업주의가 판을 치면서 어설픈 이론을 내고도 마치 자기 독창성을 과시하려는 풍조 따위가 범람하고 있으며, 엉터리 역사학을 내놓고 대중을 현혹시켜 베스트셀러를 노리는 작가들도 많이 보인다. 저자는 진솔한 역사학자로 지금의 평상심을 지니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노파심으로 당부하는 말이다.

독자들도 이 책을 읽고 나면 필자와 같은 느낌을 가질 것이며 역사인물에 대한 새로운 인목을 열게 될 것이다.

최이화/역사인사

<전환기를 이끈 17인의 명암>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격동기이자 전환기의 시대와 그 시대를 대변하는 주요 인물 17명을 다른 책이다. 서로 20년씩 관계했던 인물들을 통해 그 시대를 읽어내고, 승자의 기록만이 역사의 진실인가를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이면에 숨겨진 진실

을 찾는 이 책은 역사학자 이희근씨가 썼다. 휴머니스트, 1만원

'전환기를 이끈 17인의 명암' 이희근 지음



사실 재해석·평가...영웅사관 철저히 배제

새로운 시대정신 따른 재평가 계속 돼야

# 눈 있는 자 보아라! 여기 고승들의 회통(會通)치는 소리가 있다

소설로 읽어보는 큰스님들의 큰 삶, 은은한 감동의 세계로 독자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 고승열전

- 아도화상·향은 계몽 대위 온 세상 향기롭게
- 검역스님·버리고 사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일세
- 원광법사·인생은 한 토막 꿈이로다
- 자장율사·백년도 못사는데 무얼 그리 맘에는가
- 원효대사·결림없이 살거나 울처럼 바람처럼
- 의상대사·마음을 비우시게 온갖 근심 사라지네
- 보덕스님·지혜의 눈뜨면 행복이 열리거늘
- 진각국사·부처되기 쉽다네 자비롭게 살거나
- 일연스님·그대 몸안에 있는 여섯 도둑부터 잡으시게
- 원각국사·극락도 지옥도 마음속에 있다네
- 경허스님·착한 일 많이 하게 그대가 부처일세
- 용성스님·작은 술씨가 푸른 소나무 되네
- 영호스님·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네
- 만공스님·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괴롭네
- 한암스님·바구니에 물을 담고 달려가누나
- 만암스님·마지막 읽는 웃면 주머니가 없네
- 효봉스님·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누나
- 동산스님·벼슬도 배물도 풀림에 이슬일세
- 운허스님·영원한 내 것이란 아무 것도 없네
- 경봉스님·돌장승이 허허롭게 웃누나
- 금요스님·한 생각 물리면 천하가 다 내 것일세
- 전강스님·꽃불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진다
- 고암스님·도(道) 물을 것 없네 복밭이나 가꾸게
- 형당스님·마음에 타는 풀 무엇으로 크리니고

## 재미! 감동! 교훈!

당신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위대한 스승들의 포근한 가르침! 전국 불교방송 애청자들을 열광시킨 <고승열전>!

고승들의 선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 있음이 이 책에서 맛볼 수 있게 한다.

<고승열전>을 통하여 불교의 진수와 만나다. 허허롭게 웃는 돌장승이 내 앞에 다가서고, 마음에 타는 불을 끄게 한다.

한 번은 꼭 읽어 보라! 친근하고도 박진감 넘치는 고승들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들, 그 재미와 감동은 손에서 쉽게 책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E-mail / woribook@chollian.net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날권으로도 판매합니다.

저자 윤칭광은 MBC-TV 개국기념작품 공모에 소설 <末島>가 당선되었으며,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거쳐 현재 <법보신문> 논설위원, 법정스님이 제작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본부장, 출판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고 다수의 작품들이 있다.